

국내 허술한 방역... 메르스에 떨고

IS 테러에 전 세계가 떨고 국제



메르스 공포

메르스는 단어를 올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공포 그 자체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1번 환자가 지난 5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만 해도 메르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메르스의 빠른 전염력에 환자가 186명까지 급증하고 38명이 세상을 떠났다. 환자 수가 다시 0명이 될 때까지 190일이 걸렸다.

안철수 탈당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제1야당 분당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1년9개월만에 새정치연합을 떠나게 된 안 전 대표는 당의 중진과 수도권 의원 등의 중재 노력에도 결국 문재인 대표와 당의 혁신방향에 대한 인식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섰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야권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란 핵협상 13년만에 타결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협상이 7월 14일 타결됐다. 당초 6월 30일을 최종 타결시점으로 잡았던 이란과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EU)은 시간을 수차례 연기하는 진통 끝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주요국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로써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노력으로 13년 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IS의 파리 테러

연초부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줄이던 한해였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는 전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프랑스·미국·영국 등은 IS의 근거지인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SNS 등을 통해 영향을 받은 이들이 저지르는 자생적 테러를 어떤 방법으로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날 22일 서울 대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서거했다. 향년 88세. 차남 현철씨는 "고인이 남긴 마지막 유훈은 통합·화합"이라고 전했다. 고인은 재임 시절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 시행 등 정치·경제개혁을 이뤄냈으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로 빛이 바랬다.

박 대통령 중열병식 참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 탕안면 성루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관은 한중간 신(新)밀월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미국 우호국 정상 중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미·중 패권전쟁

중국은 올해 경제·정치·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초강대국 미국과의 경쟁구도를 본격화했다. 연초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영국 등 미국의 우방을 줄줄이 참여시킨 중국은 6월 창립 때는 회원국을 57개국으로 확대하며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 정부부처에 대한 중국의 해킹 의혹 등 안보를 둘러싸고도 충돌이 계속됐다.

난민·그리스사태 유럽 혼란

유럽연합과 단일통화 지역 유로존이 자랑하는 강력한 결속력은 올해 큰 도전을 받았다. EU의 창립 회원국인 그리스는 6월 30일 국제통화기금에 빌린 18억 유로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영국에서는 EU 탈퇴 논의가 달아올랐다. 중동, 북아프리카의 정세불안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난민사태도 유럽의 분열을 부추겼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5일 김기중(55)씨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김씨는 강연을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에 흉기를 휘둘렀고 리퍼트 대사는 얼굴과 왼쪽팔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피습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한미동맹의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北 지뢰 도발

북한이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 폭함지뢰를 매설해 8월 4일 우리 장병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우리 군은 대응조치로 같은 달 10일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남북 고위당국자의 적극적인 타결로 군사적 대치는 종결됐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지난 9월 적발하고 1차로 48만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으나 파문은 이어졌다. 폭스바겐이 조작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최소 95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신뢰받는 독일기업의 이미지에 먹칠이 됐다.

뉴호라이즌스 명왕성 최근접

인류는 태양계 경계로 여겨지는 명왕성을 가까이에서 관측해 우주탐험사에 이정표를 세웠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가장 바깥 행성으로 분류돼오다 8년 전 '왜행성'으로 분류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존스홉킨스대가 함께 보낸 뉴호라이즌스가 명왕성에 약 1만2550km까지 접근했다. 뉴호라이즌스는 2006년 1월 19일 10년 가까이 명왕성으로 날아갔다.



성완중 리스트 파문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 8명 이름이 포함된 금융 매모를 남기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수사팀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가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동유럽 등 좌파정권 붕괴

올해 유럽과 남미에서는 좌파 정권이 우파에 밀려 연패하면서 정권교체가 잇따랐다. 폴란드와 스위스 총선에 이어 11월 크로아티아 총선에서도 난민 유입 제한을 주장한 보수 정당이 난민 수용 정책을 표명한 중도 성향의 집권 여당을 누르고 대승을 거뒀다. 남미에서는 원유 수출국을 중심으로 경제불안이 심해지면서 민심이 좌파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미얀마 총선 수치야당 압승

11월 8일 25년만에 치러진 미얀마 자유총선에서 야당인 수치 여당이 이끄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했다. NLD는 군부 의석을 합해 총 657석인 상하원 의석 중 59%를 확보해 대통령을 배출하고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NLD가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미얀마에서는 민주화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9월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치권 싸움으로 본격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색깔공세이자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새 역사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쓰이게 된다.

갈등 키운 식물국회

올 한해 국회는 정치도, 입법도 실종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사실상 실패했고, 국회의 기본 책무인 입법 성적표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특히 지난 9월 17일 만에 타결된 노사정 대화협을 위한 입법은 여야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있고, 총선 선거구 확정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최대 FTA' TPP 타결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10월 5일 타결됐다. TPP 타결로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자동차, 쌀, 낙농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 무역장벽을 없애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도 TPP 가입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참여 시기 등을 저율시키고 있다.

미국 대선전 트럼프 돌풍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당의 경선이 개막하기도 전에 선거전이 가열됐다. 애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과 공화당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각각 독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수사이다'들의 돌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돌풍의 핵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부동산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다.



병원최적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적합

- 전용 289㎡ (2/3 현재 카펫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군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명진(전 김대중정부 청와대행정관) 010-6209-1218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